

Great SBS를 향하여 또 한 걸음

2023년 경영목표 설명회 - 'No Limits' 정신으로 위기 돌파하자!

'SBS 컬처 코드'(2면) 선포식과 2023년 경영목표 설명회가 1월 2일(월) 목동 SBS 사옥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2023년에도 SBS는 '비전 2030 목표'인 콘텐츠/디지털/글로벌을 향해 나아간다. 박정훈 사장은 "SBS미디어그룹의 가치를 3조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 경영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No. 1 경쟁력과 광고 판매 1위를 달성한다. 드라마, 예능, 교양에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3개의 빅 이벤트(WBC야구, 여자 월드컵, 아시안게임)에서 1등을 한다.

둘째, 글로벌 메가 스튜디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스튜디오 S는 본격적인 성장 계도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예능 스튜디오를 출범시킨다.

셋째,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다각화한다. 올해는 K-POP 공연이 스페인과 영국에서 열리며 9월에는 미국판 <런닝맨>이 나온다.

넷째, 웨이브와 유튜브 수익을 제고하여 포스트 전략을 준비한다.

다섯째, SBS플러스, SBS funE는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

여섯째, 자회사들은 독자 사업을 확대하여 SBS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나간다.

2023년, 미디어 경쟁은 심화되고 경기는 어려워지며,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박정훈

사장은 "전사적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는 'No Limits'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시장의 파이가 줄면 마케팅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이라며, "콘텐츠, 디지털, 글로벌, 스튜디오, 광고, 마케팅, 유통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1등, 마케팅 1등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3년 액션플랜은 실시간, 비실시간 '1등 경쟁력'과 '광고 매출 1등'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Great SBS는 NFP(Non Fungible Person-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만든다.

NFP는 '헝그리 정신'이 충만한 사람, 남들도 다 보던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고객이 '원할 것'을 알아내는 사람, 허용 가능한 리스크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SBS가 원하는 인재상이다.

Great SBS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NFL(Non Fungible Leader-대체 불가능한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NFL은 아래에 유능한 사람을 두는 사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남이 해결 못하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 인사권자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끝으로 박정훈 사장은 "새해 SBS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Great SBS를 함께 만들어가며 'SBS 컬처 코드'도 잘 지켜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는 연하장을 띄우며 2023년 경영목표 설명회를 맺었다.

(2022 하반기 작품상 등 수상자 명단은 2면 하단)



2023 경영목표 설명회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에게 드리는 신년 연하장'

계묘년 새해에
SBS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reat SBS'를 함께 만들어가며
'SBS Culture Code'도 잘 지켜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정훈 拜上

#SBS Culture Code: SBS 구성원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제를 뛰어넘는 우리는 01

한발 앞서 새로움을 만들어 내고
월등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공정의 힘을 믿는 우리는 02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우리는 03

서로 다름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건강한 동료 관계를 유지합니다.

SBS를 대표하는 우리는 04

SBS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품격 있게 소통합니다.

어제를 뛰어넘는 우리는

01

한발 앞서 새로움을 만들어 냅니다.

시청자의 요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 트렌드를 수용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다리거나 미루지 않고 앞장서서 개선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보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월등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신 있게 시도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지지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고민합니다.
강한 책임감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우리는

03

서로 다름을 따뜻하게 포용합니다.

신체 조건,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 차이를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비방, 모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연, 학연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막힘없이 공유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입니다.

건강한 동료 관계를 유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 주거나, 성적 관계/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2) 음란하고 상스러운 농담/이야기 또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행위
3)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5) 음란한 사진, 동영상,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6) 그밖에 사회 통념상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동료 직원의 피해 내용을 절대 유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회식 문화를 만듭니다.

참석은 자유롭게!
모든 회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자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절대 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억지로 마시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회식은 꼭 저녁 시간에,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티타임, 점심 식사, 문화 활동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주세요.

기분 좋은 만큼만!

과음은 즐거워야 할 회식 자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녁 회식은 가급적 1차로 마치고, 정도를 벗어나는 음주는 삼가주세요.

공정의 힘을 믿는 우리는

02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뇌물/향응/기타 부당한 이득을 요청, 약속하거나 주고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등 회사의 모든 비용을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겸업, 겸직 등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합니다.

참정권은 존중하되 사내에서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당,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SBS를 대표하는 우리는

04

SBS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콘텐츠 제작 및 촬영 현지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존중합니다.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금전 거래나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공개적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품격 있게 소통합니다.

실명을 사용하고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분명히 밝힙니다.
확인된 사실만을 올리고,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립을 지킵니다.
인종, 문화, 종교, 성별에 대해 객관적인 가치관을 유지합니다.
타인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명예, 개인정보, 회사 기밀 등)를 존중합니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고, 욕설, 비속어, 음담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2022 하반기 작품상 우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해러원의 비극 - 외면당한 SOS' (최준호 외 5명)
<편먹고 공치리 4: 진검승부>(윤종호)
<정엽의 LP카페>(이창재)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드>(김수형, 한동훈, 이재영, 채지우)
<천원짜리 변호사>(김재현)

2022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

<생활의 달인> 방송인 서경석 | <모닝와이드 3부: 날> 방송인 김나한, 박성두 |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포맨> 방송인 이상민 | <골 때리는 그녀들> 작가 채주희 |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 | <SBS드림> 작가 최예진 | <2022 카타르 월드컵> 해설위원 이승우

2022 하반기 인센티브상

<미운 우리 새끼>, <TV 동물농장>,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

한 이야기 Y>, <런닝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골 때리는 그녀들>, <신발 벗고 돌싱포맨>, <SBS 8 뉴스>, <카타르 2022>, <김영철의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황제성의 황제파워>, <박소현의 러브게임>, <김태현의 정치쇼>

2022 마케팅 인센티브상

최우수상: <골 때리는 그녀들>
우수상: <TV 동물농장>·<애니멀봐>, <미운 우리 새끼>

2022 시청자만족도 대상

<SBS 8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22 하반기 비전실천상

미디어사업팀 박재영 | 정책팀 양유성 | 콘텐츠기획팀 정다운 | 문화사업팀 김이정 | 교양3CP소속 최준호 | 예능3CP소속 손수용 |

라디오콘텐츠전략팀 홍창용 | 통일외교팀 정윤식 | 재무팀 김춘영 | 콘텐츠마스터링팀 장철, 이재경

2022 특별공로상

SBS A&T 아트1팀 이하정 | SBS M&C 광고전략팀 김여진 | SBS 디지털뉴스랩 UX서비스팀 이상훈, SBSi 플랫폼서비스팀 박형진

2022 4분기 특종상

<금상> 김학휘, 장민성, 강민우, 유수환

2022 4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권지윤, 고정현, 원종진, 정반석, 하룡, 김경연

2022 4분기 디지털뉴스상

<금상> 김아영, 정윤식, 배준우, 김민정, 이재영

장르물의 명가 SBS가 내놓는 또 하나의 명작



이선균 x 문채원, 불의에 맞선 사람들의 통쾌한 복수극 - 1월 6일(금) 첫 방송



2023년 드라마 왕국 SBS의 포문은 금토드라마 <법쩐>이 연다.

1월 6일(금) 밤 10시에 방송되는 <법쩐>(극본: 김원석, 연출: 이원태)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 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이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뜨겁게 맞서는 이들의 모습이 짜릿한 스릴감과 폭발하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전망이다.

<법쩐>은 드라마 <여왕의 교실>, <태양의 후예> 등을 집필한 김원석 작가와 영화 <악인전>, <대장 김창수>를 연출한 이원태 감독이 의기투합하여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 이선균, 문채원, 강유석, 박훈, 김홍파, 김미숙, 이기영, 서정연, 김혜화, 최덕문까지 자타공인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2023년을 빛낼 명품 드라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선균은 글로벌 사모펀드 '체인지'의 오너이자 투자 총괄 책임자인 은둔형 돈 장사꾼 은용 역을 맡았다. 부당거래에 희생된 고마웠던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복수를 시작하는 인물이다.

문채원은 사법고시와 연수원 수석 출신 엘리트로 누구보다 바르고 정의로운 검사를 꿈꿨던 박준경 역을 맡았다. 인생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검찰청을 그만두고 법무관으로 육군 소령이 된다. 준경은 '괴물'과 싸우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강유석은 은용(이선균)의 조카이자 출세에 목마른 열혈 청년 검사로, 은용과 함께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는 장태춘 역으로 나섰다. 박훈은 권력의 최상위에 서기 위해 적과의 결탁도 서슴지 않는 특수부 부장검사 황기석 역으로 출연한다. 황기석의 장인이자 기업 사채 시장의 큰손으로 '법'과 '쩐'이 손잡은 탐욕의 카르텔을 구축한 지하경제 대부 명인주 회장은 김홍파가 맡았다.

장르물의 명가 SBS가 내놓는 <법쩐>은 SBS 금토드라마 흥행불패 신화를 이어간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 한재신 교양3CP(<그알> '해러원의 비극-외면당한 SOS' 편 방송(11/5) 당시 팀장)

이태원 참사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방송돼 신속성이 돋보였다.

<그알>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용산 참사, 당진명 상하이 스캔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인에 대해 다룬 것 등이 여러 PD가 달려들어 일주일~10일 만에 만든 것들이다. 저도 현업 PD로 용산 참사 편에 참여했는데, 그 경험이 <그알> 팀장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작이 궁금하다.

10월 29일 <그알> 방송이 끝난 후 참사가 났다는 속보를 봤다. 그다음 날인 일요일, <그알> PD의 결혼식장에서 정철원 CP와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바로 회사로 들어와 PD와 작가를 소집했다.

8명의 PD 중에 당장 자기 방송이 임박한 PD들과 신혼여행을 떠난 PD를 제외하고 김재환, 홍석준, 문치영, 이현택 PD가 모두 이 사건을 취재하는 데 매달리기로 했다. 심지어 바로 그다음 주 방송을 앞둔 최준호 PD도 자기 것을 제쳐두고 기꺼이 참여했다. 작가도 신진주, 오유경, 신해, 전화경 네 명이 붙었다. 조상연 PD도 마침 자기 것을 취재하는 곳이 이태원이라 결들여 취재를 해 오기도 하는 등 사실상 <그알>의 모든 PD가 힘을 보탤.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나?

회의를 통해 네 팀으로 나뉘었다. 두 팀은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 목격자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등을 일일이 찾아 읊소해가면서 취재했고, 나머지 두 팀은 분석을 맡았다. 시청자들이 <그알>에 원하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이다. 신진주 작가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모아보자고 해서 점주들에게 사정해가며 가능한 대로 모

았다.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 단순히 제보를 부탁한 타 방송사에 비해,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 <그알>의 제보 부탁 문자가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보도국의 취재와 참사 당일 이태원 축제를 촬영 중이던 <모닝와이드>팀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모은 CCTV와 제보 영상이 300개가 넘었다. 영상을 통해 인구밀도를 계산하고, 전문가에게 들은 ‘균중밀도’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다. 3D CG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등 짧은 시간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관리가 안 돼서 발생한 사태라는 게 명백해졌는데, 요즘은 모든 게 정파 싸움으로 흐르니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다.

작품상 최우수상이 아닌 우수상에 그쳐 아쉽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보여주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2049시청률도 3.6%를 기록했다. 열심히 뛰어난 제작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출품했는데, 한편으로 <그알>이 당연히 다뤄야 할 아이টে이었고 해냈어야 할 일이어서 우수상도 겸연쩍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2002년에 입사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았다. <그알>에 3년 정도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후 <최후의 바다 태평양>, <학교의 눈물>, <바람의 학교> 등 원하던 장기 제작 다큐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편성기획팀, 노조 사무처에도 있었는데 다른 직종의 훌륭한 분들과 일해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말 열심히, 즐겁게 2년여간 <영재발굴단> 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연수를 떠났다. 연수 후 <그알>로 발령받았는데 그리 좋은 건 아니었다.



“한때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면 됐지,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느낌이랄까?(웃음) 게다가 최대한 몰입해야 하는 <그알>의 제작 여건 상 남편으로서, 아버로서는 점수가 깡이 될 확률도 높았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다시 <그알>을 하면서 후배 PD들의 에너지에 놀랐고, 다소 나태해진 스스로도 돌아왔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제작PD로 일하다, 팀장이 되어 2년의 시간을 보냈다. 12월 5일 자로 교양3CP가 되어 계속 <그알>과 함께하고 있다.

<그알> CP로서의 역할은?

<그알>은 교양본부의 큰 자산이고, 교양PD로서 꼭 경험도 해봐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회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우리 프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제작진의 창의력을 잘 발휘시키며 끌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이어온 <그알>의 ‘재미’와 ‘품격’을,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계속 지켜나가야겠다.

<그알> PD와 <무한도전> 작가의 만남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연출: 이동원)가 1월 5일(목) 밤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3부작으로 방송된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하여 베일에 싸인 금지 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MC를 맡아 금지 구역 안의 내부자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연출을 맡은 이동원 PD는 4년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하며 '정인아 미안해' 2부작,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3부작,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그 후' 등으로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탐사보도에 최적화된 이동원 PD가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등 레전드 예능을 만들어 온 김태희 작가와 만나 어떤 색깔의 프로그램을 탄생시킬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방송 최초로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의 내부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화된 스케일과 볼거리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골 때리는 그녀들>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



<골 때리는 그녀들>(연출: 김화정)이 제24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방송 부문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축구 입문 기로서, 축구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열정과 진정성에 주목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그녀들의 드라마 같은 성장 스토리에 몰입하고 응원하게 한다.

<SBS 스페셜>, <TV 동물농장> 이달의 PD상



이선영 배진희 추현검 이정은 이윤주 류영우 조관희 이화

<SBS 스페셜> '방 탈출 프로젝트 - 곰손카페'(연출: 배진희, 작가: 이선영)가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제 273회 이달의 PD상(TV 시사다큐 부문)을 받았다. '곰손카페'는 4인의 은둔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출연진과 제작진 사이의 신뢰 형성을 통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은둔 청년들이 방 밖으로 나오는 순간과 그 과정, 그간의 경험들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다른 은둔형 외톨이를 다룬 프로그램과 구별된다"고 평가했다.

<TV 동물농장> '무간지옥- 어느 야생동물 카페의 민낯'(연출: 류영우, 이근별, 추현검, 작가: 이윤주, 이화, 이정은)은 TV 교양정보 부문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TV 동물농장>이 끈질긴 취재로 유명 야생동물 카페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행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심도 깊게 분석했다"고 호평했다. 시상식은 12월 30일(목)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기술보증기금과 MOU 체결 - 중소 콘텐츠 제작사 발굴 및 지원한다



SBS 최영인 예능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이은일 이사

SBS와 기술보증기금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월 20일(화)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최영인 SBS 예능본부장과 기술보증기금 이은일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BS가 기술력과 성장을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를 발굴하고, 기술보증기금은 SBS가 추천한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 보증 지원, 기술 평가, 투자 및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상파 중 기술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SBS가 처음이다. 콘텐츠 제작 역량은 보유했으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제작사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SBS 최영인 예능본부장은 "중소 제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중소 제작사를 발굴 및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캐슬' 이달의 방송기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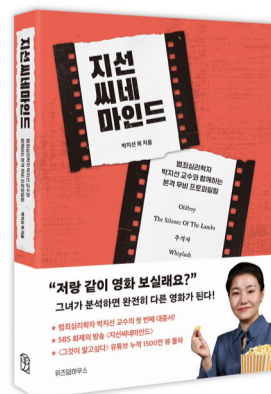


권지윤 고정현 원종진 하릉(A&T) 정반석

'경제권력이 된 불법 사채업자, 쌍방울 캐슬' 연속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 17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권지윤, 고정현, 하릉, 정반석, 원종진 기자는 불법사채업자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경제 권력을 쥐게 되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를 심층 보도했다. 시상식은 12월 28일(화)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유튜브 누적 1500만 뷰 돌파, <지선씨네마인드> 책으로 나왔다



범죄심리학자는 영화를 어떻게 분석할까? 이 궁금증으로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국내 최고의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영화를 분석하는 콘텐츠 <지선씨네마인드>를 시작했다.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고, 영화를 사랑하는 구독자들에게 이미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영상은 누적 조회수 1,5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SBS TV 프로그램으로 정규 편성되어 방송되기도 한 <지선씨네마인드>가 책으로 나왔다. 범죄 영화의 고전인 '양들의 침묵'부터 '추격자', '밀양', '위플래쉬' 등 국내외 명작 14편을 박지선 교수만의 전문적이고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독자들에게 사람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